

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8조 관련)

I. 출장개요

○ 목 적

- 제주연구원-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협력 강화 양해각서(2026~2028) 이행: 제1차 양 기관 정기교류 학술세미나 개최
- 공동연구 「제주 면세특례 도입을 위한 하이난 무관세(Zero-Tariff) 정책 적용성 연구」 정책토론회 개최
- 하이난 전도봉관(全島封關) 운영 현장('1선 개방·2선 관리' 체계) 시찰 및 최신 정책 동향 수집
- 하이난-제주 포럼 재개 등 향후 협력사업에 관한 양 기관 의견 교환

○ 기 간: 2026. 9. 7.(월) ~ 9. 11.(금), 4박 5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CIRD, 중개원): 1991년 설립된 개혁·개방 정책 분야의 국가급 싱크탱크로, 2016년 제주연구원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10년간 교류를 지속해 온 협력기관임
-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HIFTPS): 중개원이 주도해 설립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츠푸린(迟福林) 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며 귀다(郭达) 집행원장이 공동연구의 중국측 창구 역할 수행

○ 출장 인원: 제주연구원 유영봉 원장, 윤원수 도민행복연구실장, 정지형 연구위원, 양자수 부연구위원 총 4명

○ 세부 일정

일자		구분	주요 내용
9. 7.(월)		이동	제주→홍콩(U0699, 07:30~09:40), 홍콩→하이커우(HU720, 16:05~17:40) : 윤원수 · 정지형 · 양자수
9. 8.(화)	오전	정책토론회	공동연구 정책토론회(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오후	이동 · 내부 회의	원장 일행 이동: 인천→홍콩(KE2001, 08:05~10:55), 홍콩→하이커우(CX310, 14:10~15:40) 내부회의: 세미나 · 업무회의 준비
9. 9.(수)	오전	현장시찰	신하이항(新海港) 2선 여객 터미널, 신하이항 · 난강(南港) 2선 화물 집중검사장
	오후	학술세미나	제1차 양 기관 정기교류 학술세미나(15:00~18:00) 양 기관장 협력 방향 논의
9.10.(목)	오전	업무회의	하이난-제주 포럼 재개, 중개원 설립 35주년 관련 의견 교환
	오후	이동	하이커우→홍콩(CX313, 16:50~18:20)
9. 11.(금)		귀국	홍콩→인천(KE2012, 00:45~05:25), 김포→제주(KE1049 · KE1055)

II. 출장내용

1. 출장 배경

- 양 기관은 2016년 6월에 양해각서 체결 이후 10년간 포럼 · 세미나 · 상호 방문을 이어 왔으며, 2025년 12월 19일에 협력 강화 양해각서(2026~2028)를 체결함. 이번 출장은 동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방문으로, 정기교류 학술세미나의 첫 회를 여는 자리임
- 양 기관의 공동연구 「제주 면세특례 도입을 위한 하이난 무관세(Zero-Tariff) 정책 적용성 연구」가 진행 중이며, 8월 조사의뢰서 송부와 중국측 기초자료(봉관 정책, 봉관 100일 성과, 무관세 목록 등) 선행 교류가 이루어짐

- 하이난은 2025년 12월 18일 전도봉관을 시행하여 봉관 운영 원년을 보내고 있으며, 봉관과 함께 무관세 세목이 1,900개에서 6,637개로 늘어 전체 상품 세목의 약 74%로 확대되는 등 정책 고도화가 진행 중임. 봉관 운영의 현황 및 현장 확인은 제주 면세특례 연구의 실증 근거로 필요함

2. 공동연구 정책토론회 (9. 8.(화) 오전,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 제주연구원 및 중개원,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이 9월 8일 10~12시에 공동연구의 중간성과를 공유하고 쟁점을 토론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제주측은 윤원수 실장, 정지형 연구위원, 양자수 부연구위원이 참석하고, 중국측은 귀다(郭达) 집행원장, 귀원친(郭文芹) 부원장, 왕홍슨(王宏森) 연구부장, 린즈루(林芷如) 연구원, 탕치러(唐其乐) 연구원 등 참석함.
 - 발표에서는 정지형 연구위원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현황 분석, 제주 면세특구·특례 제도 설계, 향후의 입법화 관련 구상 등 내용을 소개함
- 제주는 일곱 차례 제도개선으로 4,741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특례는 미확보 상태로, 면세특례 확장·면세특구 입법화가 자치재정권 고도화의 핵심 과제임
 - 국가전략 5극3특에서 제주는 강원·전북과 함께 3특의 한 축으로, 특별법·자치권에 기반한 독자 전략 설계가 요구됨
 - 2006년 출범 당시 '빅3' 과제 중 전도 면세화는 여행객 면세(제주특별법 제255조 지정면세점)로 축소된 미완 과제로, 이번 연구는 새 의제가 아닌 재추진에 해당함. 아울러 '면세'의 네 층위(관세유보·관세면제·부가세 영세율·소매면세)를 구분하여 하이난 무관세(관세영역 재설정형)와 제주 면세특례(소매면세 근접형)의 작동 원리 차이를 명확히 함
- 하이난 봉관 체제는 '1선 개방·2선 관리·섬내 자유'의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 무관세 세목 21%→74%(1,900개→6,637개, 수입 증치세까지 면제), 무관세 자격 취득 주체 11,773개(봉관 100일), 즉시통관 원칙과 신용·위험 기반 선별검사
 - 가공증치 30% 산정식의 정확한 이해를 강조함: 분모는 판매가격이 아닌 원자재 투입액이며, 공정별 비율은 곱셈 누적임. 역내 조달 우대 장치는 WTO 보조금협정

제3.1(b)조 저축 위험이 있어 제주 번안 전 통상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봉관 100일 신규 대외무역기업 7,503개(+65.7%), 수출입 800억 위안 이상(+32.9%) 등 초기 실적은 긍정적이나, 기저효과·계절성 미분리, 원자재·중간재 중심의 구성, 양푸항 물동량 증가(47%) 등 거점 편중을 들어 인과효과는 미검증 단계로 평가함

○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카나리아 ZEC·오키나와 특별FTZ·미국 FTZ·마산 자유 무역지역의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지정과 감면만으로 산업은 유치되지 않으며, 법인세형보다 관세·간접세형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인함

- 면세쇼핑은 이용객의 83.3%가 구매액 30만 원 미만(한도 800달러의 1/4 미만)이고 개선 요구 1·2위가 상품 다양성(48.3%)·가격경쟁력(33.4%)이라는 점에서, 한도 확대가 아니라 판매품목 확대(시행령 사항)와 제주상품 연계를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제주 면세 특구 지정 요건, 수혜주체 실질활동 요건, 감면 세목·산식의 상하한, 사후심사·추징, 일몰·재평가 지표 등 법률에 담아야 할 8대 규율 항목과, '0단계 검증 → 1단계 설계 → 2단계 시범 → 3단계 평가(5개 회계연도)'의 단계별 의사결정 게이트를 제시함. 검증 결과에 따라 도입을 중단하는 것도 정당한 결론임을 명시함

○ 발표에서 중국측 협조 사항을 요청하였으며, 장려산업 목록 최신판·섬내 주민 제로관세 품목목록 원문, 무관세·가공증치 활용 기업의 업종별 구성 통계, 봉관 전후 주민 소득·물가 대응 통계, 관련 현장·기업 실지고찰 협조의 4건을 요청하였고, 중국측은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힘

○ 토론에서 하이난측은 무관세 수혜주체 관리, 2선 정산 절차, 가공증치 심사 실무 등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제주 면세특례 설계에서 예상되는 반출 관리·과세 형평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논의 결과는 공동연구 최종보고에 반영하기로 함

○ 오후 내부회의에서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와 업무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함

3. 봉관 운영 현장시찰 (9. 9.(수) 오전)

○ 제주연구원은 하이난 전도봉관 체제의 2선(二線) 경계를 구성하는 2개 기반시설을 시찰함.

- 하이난의 2선 검사장은 총 10개소로 정비되어 있으며 전 개소에 지능형 검사설비가 배치됨. 왕홍선(王宏森) 연구부 부장과 탕치러(唐其乐) 연구원이 안내하고, 항구 현

장 관계자가 검사 절차와 설비 운영을 상세히 설명함

- 「하이난자유무역항법」 제11·13·14·28조에 근거한 법정 체계로, 2선의 성격은 본토 이동을 봉쇄하는 차단선이 아니라 면세 반입 화물의 본토 반출 시 세액을 확정하는 '정산선'임. 제주 면세특구 설계에서 제기되는 밀수·과세회피 우려에 대응하는 논리와 직결됨

요소	경계	내용
1선 개방	하이난-해외	과세 목록 외 품목의 관세·수입 증치세·소비세 면제, 신용·위험 기반 선별 검사
2선 관리	하이난-중국 본토	반출 시 표준 수입 절차에 따른 세액 정산, 분할 반출·사후 일괄 신고 등 절차 간소화 병행
섬내 자유	하이난 역내	수혜주체 간 무관세 화물의 자유 유통 허용

■ 신하이항·난강 2선 화물 집중검사장

- 신하이항 남측에 위치한 화물 전용 거점으로, 봉관 이후 신하이항·난강에서 섬 밖으로 반출되는 화물의 2선 검사·정산을 한 장소에서 통합 처리함.
 - 전 성(省) 화물·우편특송 통관검사 업무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공표됨. 인접 2개 항만의 경계관리를 집중 배치해 설비 중복과 운영비를 줄인 설계로, 물류 규모가 작은 제주가 참조할 수 있는 모형임
- 상·하 2층 구조로 고가통로를 통해 G15 고속도로와 신하이항·난강에 각각 직결됨. 상층은 진입통로 → 보안검사구역 → 방행(放行)통로 → 차량 스캔시스템(H986 대형 컨테이너 검사설비) → 인공검사구역 순으로 배열됨
- 전수 검사가 아니며 세관의 관리구역에 지정된 차량만 기계검사로 유도하는 위험물 기반 선별 방식임
 - 보안검사는 다중 통로 병행으로 운영하며 기사가 하차하지 않은 채 통상 1분 이내에 완료됨

- 1~2번 검사 차선은 자유무역항 무관세 화물 혹은 부가가치 30%를 부가한 화물을 검사하며, 2~16번 차선은 일반 화물을 검사하고 있으나 후후 무관세 화물량의 증가에 따라 검사차선도 같이 조정될 예정임
 - H986 저속 통과 스캔과 지능판독(智能審圖)으로 고위험 이상을 식별하며 스캔 소요는 2분 미만임. 이상이 없으면 게이트에서 즉시 방행되고, 이상 차량만 인공검사구역으로 이동하는 '보안검사-확인-처리'의 폐쇄형 절차임
 - 세관 스마트감독 플랫폼이 세관·밀수단속기구·항만 등 10여 개 기관 시스템 및 국제무역 단일창구(單一窗口)와 연계되어 데이터 29.7억 건, 리스크 특징 데이터베이스 147개, 데이터 모델 93개를 운용하며, 기사가 하차·개봉하지 않는 무접촉 통관을 구현함
- 2025. 9. 15.부터 집중검사장이 신하이항 출도 화물차의 단일 출도 통로로 전환되고 전면 예약제가 시행됨
- 출도 화물차는 '충저우해협 페리 관리자(琼州海峡輪渡管家)'·'신하이항' SNS 공중계정으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미예약 차량과 예약 시간 미준수 차량은 검사장 진입이 제한됨
 - 예약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지능형 예약분류 설비 2개소가 배치되어 예약 차량은 전용 통로로 항만에 진입하고, 미예약 차량은 1층 임시대기구역에서 온라인 예약을 마친 뒤 통행함
 - 신선 농수산물 등 녹색통로(綠通) 화물차를 위한 전용 차선 5개가 항만 구역에 신설되어 24시간 안내 인력이 배치되며, 약 6만㎡의 전용 대기구역과 기사쉼터(810㎡)를 운영함
- 봉관 100일(2025. 12. 18.~2026. 3. 27.) 기준 평균 통관시간 26% 단축, 가공증치 본토 반입판매 547건·화물가치 3억 1,400만 위안(감면 관세 1,558만 위안)이 공표되었으며, 165일 기준 무관세 수입 화물가치는 누계 26억 4,500만 위안임

■ 신하이항 종합교통허브 (2선 여객 항구)

- 하이커우 서북부에 위치한 충저우(琼州)해협 횡단 여객·차량 로로(RO-RO) 관문으로, 하이난과 광둥성을 잇는 사람·차량 이동의 축임. 하이난성은 본 허브를 2선 구

안의 검사 매개시설로 지정하여 '1회 신고·1회 검사·원스톱 통관(一次申報·一次查驗·一站通關)'을 구현함

- 2015. 12. 개항 후 2단계 사업으로 전용 로로 선석을 10개에서 18개로 확충함. 여객 종합허브는 총투자 50억 위안, 부지 93.42만㎡, 건축면적 21.6만㎡ 규모로 2023. 11. 시운영을 개시한 중국 최대 항만 카페리 허브이며, 연간 설계 처리능력은 여객 3,500만 명·차량 560만 대임
- 보딩브리지 6개가 선석 12개와 직결되는 인차분리(人車分流) 구조로, 여객은 2층 출발홀로, 차량은 세관 검사·보안검사 구역을 거쳐 선석 대기구역으로 이동함. 섬내 면세 취득 물품의 반출 관리, 휴대품 한도 확인, 여객·검사 동선 분리 설계를 현장에서 확인함
- 제주 면세특례 제도 설계에서 쟁점이 되는 반출 관리·검사 체계·경계 운영비를 운영 실물로 확인한 것으로, 공동연구 보고서의 실증 근거로 활용 예정. 검사장 검사 차선(통로) 개수와 검사 비율·처리 실적 등 미공개 지표는 추후 중국측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함

4. 제1차 양 기관 정기교류 학술세미나 (9. 9.(수) 15:00~18:00,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사무동 505호 종합회의실)

○ (개요)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상호 학습과 협력 발전」을 주제로 제1차 정기교류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 주최, 사회 양루이(楊耄) 이사장, 중국어·한국어 순차통역으로 진행. 중국측 츠푸린 원장 등 9명, 제주측 방문단 등이 참석함

○ (양 기관장 협력 논의)

- 유영봉 원장과 츠푸린 원장은 인사말과 회담을 통해 향후 양 기관 협력 방향을 논의함
- 학술교류회를 양 기관이 매년 여는 정례 행사로 발전

- 공동연구의 후속 과제 발굴, 연구인력 상호 방문, 전문가·기관 인적 네트워크 구
- 하이난-제주 포럼의 공동 개최와 학술자료·정보 공유의 제도화

■ 발표 1. 윤원수 도민행복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제도와 지역균형발전」

○ (제도 현황)

- 특별자치·규제특례·국제자유도시를 결합한 제주 제도모델 위에서, 제주특별법 제 255조(여행객 관세 등 면제·환급)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근거한 지정면세점 제도가 JDC·제주관광공사(JTO) 운영으로 정착함.
- 현재 지정면세점 5개소(공항 1· 시내 1· 항만 3)와 일반 보세판매장 3개소(롯데 2· 신라 1)가 운영되며, 특례규정 제4조에 따라 주류·화장품·향수 등 16개 품목류가 면세 대상임

○ (도입 배경·운영 체계)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특례로, '제주 방문·출도 여행객 → 지정면세점 구매 → 공항·항만 수령 → 관광소비 확대·지역경제 기여'의 운영 구조를 가짐. 운영 주체는 JDC·JTO,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법상 지정면세점 특례임

○ (성과와 한계)

- 상품 구매 중심의 면세특례가 안착되어 관광객 편의와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으나, 2022년을 정점으로 매출·이용객이 감소세로 전환함.
- JDC 면세점 매출은 2022년 6,585억 원에서 2025년 3,965억 원으로, 이용객은 같은 기간 528만 명에서 338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JTO 면세점도 2022년 539억 원에서 2025년 299억 원으로 감소함

○ (감소 원인 진단)

- ① 제도성 운영 제약: 판매품목 제한, 구매한도 관제, 공항·항만 수령 방식에 따른 쇼핑 편의 저하
- ② 가격경쟁력 약화: 고환율 지속, 수입상품 가격 상승으로 면세 우위 축소
- ③ 입지·접근성 제약: 공항·항만 대비 시내점의 접근성 열세, 자연 유입 고객 확보의 한계 — 세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함

○ (지역환원 구조)

- 제주특별법 제267조에 따라 JDC는 지정면세점 전년도 순이익의 5% 범위에서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자하며, 면세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소개함.
- 다만 제255조 제2항(관광 관련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미개정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제도개선 경과)

- 전도 면세구역화, 면세점 설치 확대,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관광진흥기금 신재원 등 그간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와 심의 결과를 단계별로 소개함.
- 전면 면세구역화는 위헌·밀수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면세점 이용횟수 확대·주류 구매한도 상향 등 부분 개선으로 이어짐

○ (개선 방향)

- ① 제255조 제2항 이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② 지역상품·지역기업·관광서비스와의 연계 강화로 면세소비의 도내 파급 확대
- ③ 면세수익의 지역 재투자과 환원구조 업그레이드, 면세사업을 성장형 산업으로 육성하는 3단계 방향을 제시함

■ 발표 2. 귀다 집행원장 「봉관 운영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 (제도 도입)

- 2018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탐색 착수 이후 2025. 12. 18. 전도봉관을 공식 가동함으로써, 하이난이 출발 단계에서 실질 운영 단계로, 정책 시범에서 제도적 장치로 전면 전환되었으며, 중국의 자주적 개방·일방적 개방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평가함

○ (전략 목표)

- 하이난을 신시대 대외개방의 핵심 관문으로 육성한다는 국가 전략을 세 축으로 설명함
- 지리적 이점: 초대형 내수시장을 배후에 두고 비행 4시간 내 아시아 21개 국가·지역, 세계 인구의 약 47%, 세계 GDP의 약 30%를 아우름

- RCEP 접점: 하이난 무관세와 RCEP 무관세의 중첩 효과, 시장 규칙·서비스 체계의 상호 인정을 통해 중국 대시장과 아세안 중심 RCEP 대시장을 잇는 허브로 발전. 열대농업·녹색경제·의료·해양경제 분야의 중국-아세안 산업망·공급망 융합 기지 조성
- 블루이코노미 플랫폼: 남중국해 200만km² 해역을 관할하는 이점을 바탕으로 범남중국해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을 지렛대로 한 해양 협력 플랫폼 구상

○ (정책 체계)

- 봉관 이후의 무역·투자 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함
- '1선 개방': 무관세 상품 비중 74%와 '저개입·고효율'의 세관 감독, 무관세 상품 목록의 지속 확대 계획
- 가공증치 개선: 주력사업 매출 60% 요건 폐지, 무관세 화물의 가공증치 대상 포함, 상·하류 기업 간 부가가치 누적 합산, 역내 조달 원재료 공제 등 4대 개선
- '두 개의 15%': 장려업종 법인세 15%(장려목록 방식에서 네거티브 목록 방식으로 전환 예정)와 고급인재 개인소득세 15%(향후 3%·10%·15% 누진세율로 확대 예정)
- 금융·데이터·인재: EF계좌 잔액 6,000억 위안 돌파(2026. 6. 말), 데이터 반출 네거티브 목록(심해·우주·종자·관광·면세 5개 분야)과 실명 등록 후 해외 데이터 베이스 자유 열람, 선진국 직업자격의 일방향 인정 제도
- 일방적 개방의 최전선: 중국 기업의 하이난·아세안 구매·가공·보세창고 센터 설립 지원, 가공증치 정책을 활용한 아세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 (입법 보장)

- 「하이난자유무역항법」이 성급 지역 첫 단독 입법인 '기본법', 전국인대·국무원 입법 권한 일부를 이양받은 '수권법', 최고 수준 개방을 지향하는 '최고수준개방법'의 성격을 가지며, 2026. 5. 25. 전국인대 법 집행 점검 착수, 지방법규 57건 제정(산업 발전·인재 지원 분야 21건으로 최다) 등 입법 기반 정비 현황을 설명함

○ (시사점)

- 무관세·가공증치·2선 정산의 최신 제도 변화가 제주 면세특례 설계와 직결되며, 공동연구의 분석 대상 제도가 실제로 안정 운영되고 있음을 정책 당사자의 설명으로 확인함

■ 발표 3. 왕홍선 연구부 부장 「개방이 이끄는 산업 전환과 발전 — 인공지능·해양경제」

○ (문제 제기)

- 세계적 산업 변혁 속에서 후발 지역의 경쟁우위는 선진 지역 모델의 복제가 아니라 '아세안을 향한 입지 + 자유무역항 개방 제도 + 열대 섬 특색 응용 현장'의 결합에 있으며, 신기술과 지역 자원의 융합으로 개방이 이끄는 산업 전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함

○ (인공지능: 신산업혁명론)

-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으며, 2026~2035년 세계 경제 연평균 성장률을 1%p 끌어올려 19세기 산업화에 맞먹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PwC)을 소개함. 이는 후발 지역이 전통 산업 경로를 뛰어넘을 기회라고 평가함

○ (인공지능: 특색 현장 개방 전략)

- 기업 조사 결과 보조금보다 시장 개방이 더 큰 산업 흡인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함.
- 자율주행 기업 네오릭스는 칭다오가 도로 통행권을 개방한 것만으로 무인 배송차 1,000여 대를 투입했으며, 하이난이 시장을 열면 최대 1만 대 배치와 연구인력 상주 의사를 밝힘.
- 쑤야 야저우만 과학기술성의 AI 종자산업(유전자 서열 예측·작물 표현형 인식), 링수이의 세계 첫 상용 해저 지능형 컴퓨팅 센터(해수 자연 냉각으로 에너지 소비 40% 이상 절감) 등 특색 응용 생태계 사례를 제시함

○ (인공지능: 중국-아세안 협력)

- 2030년까지 AI가 아세안 GDP를 10~18% 끌어올릴 전망이나 아세안은 컴퓨팅 기반이 취약함.
- 하이난은 3대 통신사 국제통신 관문국과 아세안·홍콩 연결 해저케이블, 국경간 데이터 제도를 갖춰 녹색 컴퓨팅·데이터 가공·응용 확산·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국-아세안 AI 협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해양경제: 현황과 잠재력)

- 중국 해양경제 총량은 10조 위안을 돌파해 세계의 약 40%를 차지하며, 하이난은 중국 전체의 약 2/3에 이르는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자원 대성임.
- 2025년 하이난 해양생산총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전국 1위)하고 성 경제 비중이

35.9%로 상승했으나, 해안선 단위당 해양경제 밀도는 광둥성의 29.2%, 해역 사용권 확정 면적은 이용 가능 면적의 1% 안팎에 그쳐 잠재력이 크며, 이것이 곧 개방 협력의 여지라고 진단함

○ (해양경제: 3대 협력 방향)

- ① 크루즈 관광: 중국-아세안 크루즈 항로 · 관광시장 연동
- ② 해산물 무역 · 가공: 무관세와 가공증치 관세면제 정책을 활용한 아세안향 무역 · 가공 기지화
- ③ 해양 신재생에너지 · 해양플랜트 서비스: 해상풍력 자원과 자유무역항 정책을 결합한 개방형 서비스 개척

○ (제주 시사점)

- 하이난과 제주는 발전 여건이 다르지만 '특색 우위를 현대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응용 현장 개방을 통한 신기술-전통산업(관광 · 농업 · 해양) 결합과 개방형 제도 환경 조성이라는 두 방향을 비교 과제로 제안함

○ (토론 · 협력사항 논의)

- 발표 후 토론과 협력사항 논의를 통해 교류회의 정례적 개최, 연구인력 상호 방문 · 공동연구 · 포럼 공동 개최 · 학술자료 공유의 제도화 방안을 다룸

의제	주요 논의 내용
교류 정례화	정기교류 학술세미나를 양 기관 교차 개최 방식의 연례 행사로 발전
공동연구	현 과제(11월 말 완료 예정)의 후속 과제 발굴, 연구인력 상호 방문, 전문가 · 기관 인적 네트워크 구축
포럼 · 자료 공유	하이난-제주 포럼 공동 개최 추진, 학술자료 · 정보 공유의 상시 제도화

5. 양 기관 업무회의 (9. 10.(목) 오전)

- 중국측 양루이 이사장, 귀원친 부원장, 왕홍선 연구부 부장 등과 업무회의를 갖고, 하이난-제주 포럼의 재개와 양 기관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함
- 2019. 1. 양 기관이 공동 주최한 '하이난-제주 포럼'(주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과 하이난-제주 협력의 새로운 기회)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음
 - 양측은 우선 각자 지방정부 보고를 거친 뒤, 추후 대외협력부서를 통해 포럼 개최를 준비해 나가기로 함
- 올해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설립 35주년을 맞아 중국측이 기념행사에 유영봉 원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 기관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함

6. 귀국 (9. 10.(목) 오후 ~ 9. 11.(금))

- 9. 10.(목) 오후 하이커우 출발(CX313), 홍콩 경유 9. 11.(금) 새벽 인천 도착(KE2012) 후 김포-제주(KE1049 · KE1055) 이동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하이난자유무역항 봉관 운영의 실물 확인하며, 2선 구안 10개소 · 지능형 검사설비 등 '1선 개방 · 2선 관리'의 운영 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함. 2선이 차단선이 아니라 정산선으로 설계 · 운영된다는 점은 제주 면세특례 도입 논의에서 제기되는 밀수 · 과세회피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근거가 됨
 - 무관세 화물 검사장의 H986 스캔 2분 미만 · 보안검사 1분 이내의 무접촉 통관, 전면 예약제와 지능형 예약분류 등은 적은 인력으로 경계를 관리하는 모델로, 물류 규모가 작은 제주의 특구 경계 설계에 참조 가치가 큼
 - 무관세 정책 최신 동향 확보하며, 무관세 세목 6,637개(74%) 확대, 가공증치 요건 완화, 데이터 반출 네거티브 목록 등 정책 고도화 동향을 발표 · 자료로 확보함.

공동연구 최종보고서의 시의성을 높이는 기반임

- 공동연구 협력 체계의 신뢰 확인하며, 중국측의 기초자료 제공·질의 회신·현지 조사 협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함
- 교류 정례화의 기관장 공감대가 형성되며, 양 기관장이 학술세미나 정례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자료 공유 제도화에 공감함. 협력 강화 양해각서의 실행 틀이 구체화되는 단계임
- 포럼 재개의 추진 경로 합의하며, 하이난-제주 포럼 재개에 대해 '지방정부 보고 → 대외협력부서 간 준비'라는 현실적 추진 경로에 인식을 같이함. 포럼이 재개되면 양 지역 협력의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함

○ 출장 결과의 활용 계획

- 현장시찰·토론회에서 확보한 봉관 운영 실태와 최신 정책 자료를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와 제주 면세특례 제도 설계에 반영
- 하이난-제주 포럼 재개를 위한 지방정부 보고 자료 작성과 대외협력부서 간 준비 절차를 지원하고, 중개원 설립 3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검토. 검사장 검사 차선수·검사 비율 등 미공개 운영 지표는 중국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
- 정기교류 학술세미나의 차기 개최(제주)와 학술자료·정보 공유 제도화의 실무 방안을 마련

IV. 첨부자료 및 사진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2026년 9월 7~11일 하이난 출장 계획서 [기제출, 별첨]

○ 현지 일정 증빙자료 [별첨]

○ 회의·발표 자료 [별첨]

- 학술세미나 회의 일정(중문·국문), 원장 인사말(국문·중문)
- 발표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제도와 지역균형발전」(국문·중문), 「봉관 운영의 하이난 자유무역항」(중문·국문 번역), 「개방이 이끄는 산업 전환과 발전」(중문·국문 번역), 공동연구 정책토론회 발표자료(국문·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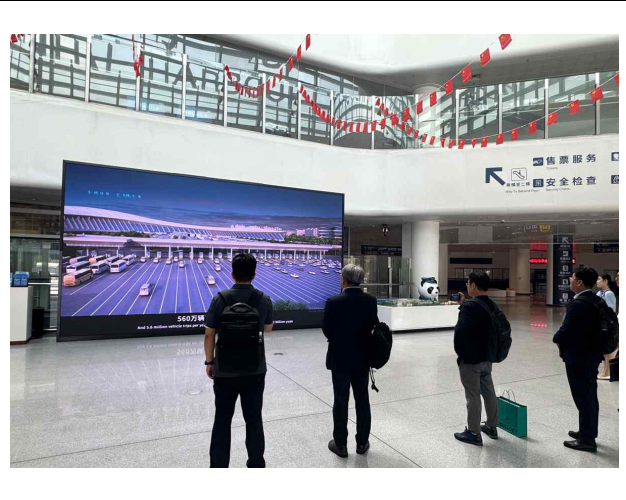
정책토론회=1



정책토론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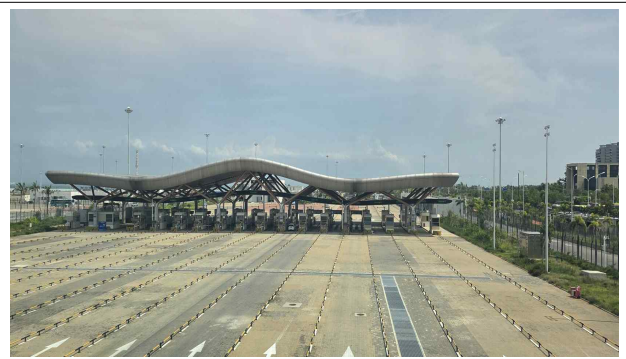
2선관리 현장 조사-1



2선관리 현장 조사-2



2선관리 현장 조사-3



2선관리 현장 조사-4



2선관리 현장 조사-5



2선관리 현장 조사-6



정기교류 학술세미나-1



정기교류 학술세미나-2



정기교류 학술세미나-3



정기교류 학술세미나-4